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최원희*

Geographical Research Trend and Task on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in Taeon Peninsula Region

Wonhoe Choi*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파악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전형적 평야지대가 아닌데도 집촌이 나타나고,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가 아닌데도 산촌이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의 경우 대체로 저산성 구릉지 사이의 골짜기에 집촌이 발달해 있고, 저산성 구릉지의 완사면에 산촌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집촌과 산촌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이 최근 밝혀지고 있는데, 집촌과 산촌을 포괄하여 임야개척, 해안개척,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 등 3가지로 집약되고 있고, 산촌경관의 경우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반도의 산촌의 경우 이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이 촌락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시기도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집촌의 형성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완료되었고, 산촌의 형성은 1930~1960년대 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필자의 답사 결과에 의하면, 태안반도에서 촌락형성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과 일부 상이한 새로운 유형의 집촌과 산촌, 즉 이른바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유사집촌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 집촌이 오랜 세월을 걸쳐 화석적 관행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 배산임수 입지원리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기존의 전통적 산촌 입지에서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와 기존 입지에서 벗어나서 간척지 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여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태안반도 일대는 최근 들어서 촌락지역의 곳곳에서 각종 개발이 난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태안반도 일대 촌락의 원형이 매우 급속하게 변형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반도 일대에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과 전통적 산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태안반도 일대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특히, 전통적 집촌에서 원형적 요소의 변형상태, 전통적 산촌에서 집촌적 요소의 차입, 논농사 지대에서 전통적 산촌의 가옥-경지 근접원리의 재연 등은 다소 변칙적인 상태로 간주되어 심층적 연구가 시급하다.

주요어 : 태안반도, 촌락형성, 전통적 집촌, 전통적 산촌, 유사집촌, 유사산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about geographical research trend and task on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in Taeon peninsula reg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aeon peninsula region, the agglomerated settlement clearly appears despite the region is not the typical plain area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clearly appears despite the region is not the mountainous slash-and-burn field. On the whole the agglomerated settlement locates in the valley between two hill lands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locates in the easy slope of hill land in Taeon peninsula region. In addition, the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very unusually coexist in Taeon peninsula region. Amid these geographical research trends, the forest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vh1@kongju.ac.kr)

reclamation, the reclamation of small tidal bays and the expansion of settlements by family branch system were discovered as the formation factors of rural settlement including the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landscape was discovered to be formed socially and originated secondly from the agglomerated settlement, having quite a confrontation with the agglomerated settlement landscape in Taean peninsula region recently. Especi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ispersed settlement in Taean peninsula region has been formed by the various natural and social factors induced b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it is appeared that in relation to the period of settlement formation in Taean peninsula region the formation of agglomerated settlement has been completed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e formation of dispersed settlement has been completed in the decades of 1930s and 1960s. Meanwhile, it is estimated that according to the author's field survey to identify the formation factor of rural settlement in Taean peninsula region the new types of the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differing from the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or the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pseudo-dispersed settlement have been formed. The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in Taean peninsula region is mainly composed with the case being not partly complied with the location principle of 'mountain behind village and river front village'(baisanimsoo, 背山臨水) having been conventionally applied to the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in Ko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pseudo-dispersed settlement in Taean peninsula region is mainly composed with the case retaining the form of dispersed settlement and combining dry-field farming with paddy farming at the existing location of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and the case relocating at the reclaimed paddy farming land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ocation, retaining the form of dispersed settlement and combining dry-field farming with paddy farming. Because the many rural areas in Taean peninsula region has been being developed in a state of disorder, the many rural settlements seem to be in a difficult situation like the rapid transformation and deconstruction of origin form. Accordingly, the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dispersed settlement unjuely locating in Taean peninsula region are necessary to be studied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Also, the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pseudo-dispersed settlement being presumed to have been formed in Taean peninsula region are necessary to be studied rapidly. In particular, the further studies on the denatured state of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the inflow of agglomerated settlement elements into the dispersed settlement and the reappearance of 'proximity between rural farm and cultivated field' principle being considered as abnormal are needed.

Key Words : Taean peninsula region,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Pseudo-dispersed settlemen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촌(集村)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 형성되고, 산촌¹⁾(散村)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이문중, 1996, 222).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하천이 보편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산성 구릉지가 대부분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즉 평야지대도 아니고 고원, 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도 아닌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집촌도 산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대체로 일제시대(日帝時代) 이후 태안반도에는 산촌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고등학교 지리교

과서와 한국지리 서적에 간헐적이고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오다가 이봉준이 1977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태안반도에 산촌이 보편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산촌형성 요인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후 태안반도에는 집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산촌만이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다소 과장되어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필자가 「태안군지: 제1권 삶의 터전과 역사」(태안군지편찬위원회, 2012)의 촌락 부분을 집필하기 위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태안반도를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필자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첫째,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문헌 기술과 논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태안반도에는 산촌뿐만 아니라 집촌도 보편적으로 발달되어, 집촌과 산촌이 공존하고 있다. 셋째, 태안반도에서 집촌은 배산임수의 골형 입지에서 괴촌상 집촌(塊村狀 集村)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산촌은 저산성 구릉지 완사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태안반도의 촌락 중 일부에서는 전통적 집촌 및 산촌의 원형적 요소가 변형되거나 전통적 산촌에서 농농사와 같은 집촌적 요소를 차입(借入)하거나 가옥이 전통적 산촌에서 농농사 지대로 이전한 이후에도 전통적 산촌에서 적용하던 가옥경지 근접원리를 재연하는 매우 특이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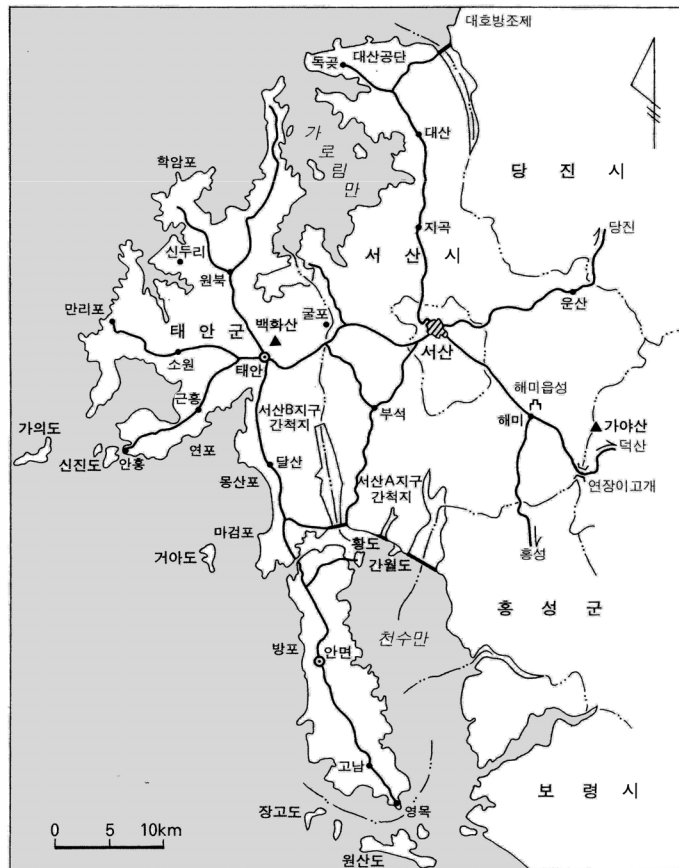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를 서적 중

심의 단편적 연구와 논문 중심의 종합적 연구로 분류하고 문헌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문헌조사에서 파악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문헌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해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촌락을 대체로 일반적 농촌에 한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의 전모를 파악하는데에는 일부의 한계가 있다.

2. 연구지역의 개관

연구지역인 태안반도는 지리적으로는 충청남도 서남부에서 황해로 돌출한 좁고 긴 반도를 의미하며, 행정구



지도 1. 태안반도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출처 : 권혁재, 1995, 257.

주 : 필자가 지도의 본래 내용 중 당진군, 서산군 및 보령군을 각각 당진시, 서산시 및 보령시로 수정하였다.

역상으로는 충청남도의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등지를 의미한다(지도 1). 태안반도의 동서 길이는 동쪽의 예산읍에서 서쪽의 만리포까지 약 130km에 이르며, 해안선 연장은 약 817km에 이르고 있다. 태안반도는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여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고, 아산만·당진만·서산만·가로림만·적돌만·천수만 등이 40km 전후의 좁고 긴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태안반도 연안은 수심이 얕고 조차(潮差)는 8.7m로 크다.

태안반도는 안면대교(安眠大橋)를 사이로 안면도(安眠島)와 분리되어 있으며, 인근 마검포에는 연안사주(沿岸砂洲) 지형이 잘 발달하여 있다. 태안반도는 북서계절풍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지형이어서 크고 작은 해안사빈, 해안사구 및 배후습지가 잘 발달해 있는데, 만리포 일대의 해안사빈, 신두리사구 및 두웅습지는 대표적이다. 해안사빈, 해안사구 및 배후습지의 일부는 방파제의 건설, 관광어촌 개발 등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어 있다.

태안반도의 지질은 서산층군에 속하는 편마암 및 화강암이 대부분이다. 태안반도의 동남쪽에는 가야산(伽倻山, 678m)·서원산(書院山, 473m)을 주봉으로 남북방향의 가야산맥(伽倻山脈)이 있는데, 이 산맥은 태안반도의 내륙 쪽 경계부에 해당된다. 태안반도의 중앙부에는 팔봉산(八峰山, 362m)이 있고, 북쪽에는 망일산(望日山, 302m)이 있으며, 이들 산지는 남쪽으로 75km 정도에 걸쳐 꼬리처럼 안면도까지 계속된다.

태안반도 해안에는 염전이 많고, 조기·새우·김·굴 등이 많이 산출된다. 태안반도의 최서단에는 천리포·만리포·연포·몽산포 등의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고, 그 일대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하계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천수만에는 간월도를 중심으로 A지구와 B지구로 구분되는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대단위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태안반도 연안에는 A·B지구 간척지 이외에도 곳곳에 크고 작은 간척지가 많아서 농경지와 천일염전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주변에는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태안반도의 내륙부에는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구릉성 산지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 연변에 소규모 범람원 충적지가 형성되어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릉성 산지 사면의 개간 농경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내륙부의 곳곳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II.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1.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

그간에 이루어진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인문지리학·취락지리학·촌락지리학·한국지리 분야 서적의 단편적 연구’와 ‘주요 논문의 종합적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1)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의 동향

(1)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의 개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인문지리학, 취락지리학, 촌락지리학, 한국지리 분야의 단행본 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정장호(1980), 홍경희(1985), 정장호(1989), 권혁재(1995),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2000),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 권혁재(2003), 전중환의(2005), NGII(2010), 이전(2011)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단편적 연구들은 인문지리학, 취락지리학, 촌락지리학, 한국지리 분야의 단행본에서 일반적 촌락론이나 우리나라 촌락에 대해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중의 일부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지리원(1980)²⁾의 연구

태안반도에는 100~300m의 구릉성 산지가 넓어 계곡과 산지완사면이 분산적이고 지하수면이 얕아서 용수(湧水)가 풍부하고 강풍지대라 연소방화(延燒防火)를 위하여 산거(散居)가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입, 가적운하(加積運河) 공사의 노력동원, 전시의 피난 등 사회적 조건이 산촌 형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국립지리원, 1980, 504).

② 오홍석(1980)의 연구

태안반도는 자연적 기초 위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복합으로 한국의 전형적 산촌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곳은 100~300m 고도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거주조건이 유리한 곡지와 산록완사면이 착잡하게

업하여 있는 위에 답작(畝作)에 비해 협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전작(田作)이 보편적이고 지하수면이 얇아 산발적 응거(散發的 雄據)에 알맞은 것이다. 더욱이 수리조건(水利條件)이 유리하여 서산군 전체가 3가구당 우물 1개소를 굴착하는 셈이니, 용수조건에 의하여 취락입지가 제약되고, 용천(湧泉)을 중심으로 집촌을 이루었던 제주도의 일반적 사정과 대조적인 것이다. 유리한 용수조건이 산촌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기초가 된다고 볼 때, 평균치 이하의 지역인 팔봉, 운산, 부석, 성연, 인지면 등지에 독립가구 전용의 우물이 많으며, 그것은 산촌이 발달지역과 거의 일치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오홍석, 1980, 191-192).

이와 같이 태안반도는 산촌이 성립하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위에 여말에서 조선초기의 왜구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 가적운하(加積運河) 공사에 대한 노력 동원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 은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임진(壬辰), 병자(丙子)와 같은 불안한 전란기를 맞이하여 왕도(王都)에 거주하는 양반계급의 도피처로 선정되어 갔으니, 여기에 고립된 생활권이 형성되고 산촌이 보편화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의 산촌경관 가운데서 골뚝이 높은 것이 상징적이며, 그것은 강풍지역의 개성있는 온돌문화 형태라고 전제할 때, 산촌경관은 곡부(曲部)의 미분화(未分化)와 함께 방화(防火)의 의의를 살려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오홍석, 1980, 192).

③ 정장호(1980; 1989)의 연구

근래 인구증가에 따라 벼농사 지역 안의 구릉지나 산지사면이 개간되어 산촌이 발생한 곳도 있는데, 서산·당진지방은 이의 보기라고 할 수 있으나, 태안반도 일대의 산촌은 강한 서풍으로 인한 화재의 연소방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방의 가옥구조나 높은 골뚝에서 엿볼 수 있다(정장호, 1980, 208; 정장호, 1989, 274).

④ 홍경희(1985)의 연구

태안반도는 100~300m의 저산성 산지가 전지역의 70%를 점유하고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여 농경지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지하수면이 얇으며, 일반적으로 건조하여 산촌 형성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촌락은 용수(湧水)가 풍부하고 강풍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산거(散居)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산촌은 대체로 조선조 초기에 형

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비교적 넓은 농경지에 다수의 복귀민 및 외지에서 유입민들이 산거하여 산촌이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그것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홍경희, 1985, 198).

⑤ 권혁재(1995)의 연구

가야산 서쪽의 태안반도에서는 높은 산도 해발 300m 내외에 불과하다. 해발 50m 이하의 구릉지가 넓게 분포하며, 이러한 곳에는 산촌이 발달되어 있다. 구릉지는 물이 귀해서 살기가 좋지 않았다. 산촌의 형성은 구릉지 개간의 역사가 오래지 않다는 점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구릉지 개간 또는 야산 개발은 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근래에는 구릉지 골짜기의 밭이 논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논에서는 관정(管井)으로 끌어올리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쓰인다(권혁재, 1995, 254).

⑥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³⁾;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³⁾의 연구

밭농사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산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서산군 부석면 갈마리의 경우 해안 부근에 논도 있으나, 각 농가는 통작거리(通作距離)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 밭 내부에 입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촌을 형성하게 된다(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 2000, 123;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150).

⑦ 권혁재(2003)의 연구

태안반도에는 기복이 작은 파랑상의 구릉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산촌은 주로 이러한 구릉지에 분포한다. 기복이 작은 구릉지에서는 밭을 많이 일굴 수 있지만, 토양이 척박하고 물(식수)이 귀해서 농경지의 개간과 주민의 정착이 늦어졌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릉지에서도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뽑아올릴 수 있게 되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태안반도에서는 자식들이 분가할 때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짓되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도 산촌의 발달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틀림없다(권혁재, 2003, 464).

⑧ 전중환외(2005)의 연구

태안반도에 가보면, 서산, 태안, 당진 일대의 가옥들이

100~200m 간격으로 개별 분포하는 매우 이국적인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과거 화전지대였던 지리산지나 태백산맥의 일부 지대를 제외하면 이러한 경관은 한반도에서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태안반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산촌에 주목하여 이를 이 지역의 지역성 파악을 위한 주요한 지표로 간주하며 연구해 왔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전종환외, 2005, 188-198).

지형 : 태안반도 일대는 100~3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들이 분포하여 그 사이에 폭이 좁은 곡저지와 완사면, 구릉지들이 전개될 뿐 하천과 평지의 발달은 아주 미약하다. 이같이 산지와 구릉지가 탁월한 기복이 많은 지형을 보이며, 경작 가능한 경지는 좁은 곡저지, 완사면 또는 구릉사면뿐이므로 경지의 규모는 작고 형태는 불연속적이다. 이러한 경지의 소규모성과 불연속성으로 인해 농부의 가옥들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기보다는 개별 소유의 경지에 각각 밀착하여 분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가 산촌경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양 : 가옥은 원칙적으로 화강암 풍화토와 같이 배수가 좋고 토양이 굽고 거친 지역을 택하여 입지한다. 가야산지 일부와 해안 저지대를 제외한다면, 태안반도 일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옛 문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생약초, 담배, 콩, 마늘, 생강 등 밭농사가 주로 행해졌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점 역시 하천 발달이 미약하고 토양이 조강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토양조건 하에서 농부는 각각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가옥을 짓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일상적으로 왕래해야 할 생산공간, 즉 각자 소유의 밭 안쪽에 가옥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 :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즉 곳곳에 우물이 많고 지하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산촌경관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지하수면이 깊어 식수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용수를 끌어들이는 공동으로 우물을 파야 할 필요에서 집단적 거주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촌락의 대부분이 우물을 중심으로 집촌을 형성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태안반도 지역은 비교적 최근까지 각 가옥마다 수동식 펌프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지하수면이 얕고 식수원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뜻이다. 굳이 물을 찾아서 가옥들이 집촌을 형성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대규모 노력 동원에 대한 기피 은거 : 삼남지방의 세곡미 수송은 반드시 태안 지방의 근흥면 안흥량(安興梁)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곳은 난항처로서 배가 자주 전복되어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착공사에 참여하였다. 고려왕조에서는 1차, 2차의 공사에서 성공하지 못하였고, 조선왕조에서도 이 공사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지하의 암반 노출과 조류의 영향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가혹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안면도와 태안 남면 사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공사는 1578-1713년 사이에 준공되었으며, 안면도는 섬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대 개착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며, 결국 이를 기피하여 산간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산촌 형성의 주인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 : 왜구는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해안에 출몰했다. 특히, 고려말 신우 원년(1375년)부터 약 10년간 서해안 일대는 왜구의 침몰이 빈번했는데, 그 중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태안지방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군’ 편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태안지방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군수가 예산현으로 도피하였으며, 수년 후 군수가 돌아왔으나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산촌 경관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도 피해간 은거지 : 태안반도 지역은 한양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 인구가 희박하고 지형상 용거(雄據)가 용이하다는 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양의 많은 사족들에게 신변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피난지 및 낙향지로 선호되었던 것이다. 이 때 촌락은 각자의 신변 보호와 경지 관계로 인해 분산 입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택지 선정시의 독립 지향적 관행 : 서산, 태안 지방에서는 택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자기 소유의 경지에 위치해야 하며 타인의 택지에 근접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내려오고 있다. 택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타인의 택지를 빌리지도 또한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독립지향적, 개인주의적 사고를 말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풍수사상이나 신분관계, 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 집단거주 경험한 피해 의식에서 기인한 일종의 도피행위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관행 역시 산촌경관을 지속시킨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⑨ NGII(2010)⁴⁾의 연구

태백산맥 서사면 고원지대에는 발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산촌이 발달해 있는데, 이러한 고원지대 산촌과는 무관한 산촌이 태안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의 산촌은 1960년대에 농경지 확보를 위해 시행된 대규모의 간석지 개척과 관련이 깊다(NGII, 2010, 158).

⑩ 이전(2011)의 연구

태안반도에는 고도 100~300m의 낮은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여 그 사이에 좁은 곡저지(谷底地)와 완사면, 구릉지들이 전개될 뿐 하천과 층적평야의 발달은 아주 미약하고, 태안반도에는 해풍이 연중 불어오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전, 2011, 129-132):

첫째, 곡저지에서는 지하수면이 낮아 우물을 파기 쉬워 우물이 산재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둘째, 구릉지에서는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농사가 발달하였는데, 발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산촌형의 취락발달을 가져왔다. 셋째, 해풍을 피하기 위해 곡저지에 입지하는 것이 좋은데, 구릉성 산지 사이에 좁은 곡저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들이 산재하여 입지하게 되었다.

태안반도에서는 자식들이 분가할 때,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짓되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습도 산촌의 발달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충남의 태안반도와 서산지방에 산촌이 많은 이유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고도 100~30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에서 발농사를 하고, 우물을 구하기 쉽고 해풍을 피하기 쉬운 곡저지에서 주거하면서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짓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의 동향 앞에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개관했는데, 그 결과 단편적 연구들에서 제시한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동시에 촌락형성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제시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 요인'에 대해 주요어 중으로 보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지리원(1980) : 넓은 구릉성 산지에 따른 계곡과 산지완사면의 분산 분포, 얇은 지하수면에 기인한 풍부한 용수, 강릉지대에서의 연소방화, 왜구의 침입 등 전시의 피난, 가적운하 공사의 노력동원 회피(국립지리원, 1980, 504).

② 오홍석(1980) : 구릉성 산지, 곡저 및 산록완사면의 발달, 전작의 보편성, 얇은 지하수면에 따른 수리조건인 유리, 유리한 용수조건, 독립가구 전용의 많은 우물, 여말~선조 왜구로부터의 안전 추구, 가적운하 공사에 대한 노력 동원으로부터 회피, 입진·병자와 같은 불안한 전란기 중 왕도 거주 양반계급의 도피처로 선정, 강릉지역, 높은 상징적 굴뚝과 개성있는 온돌문화, 곡부의 미분화와 방화(오홍석, 1980, 191-192).

③ 정장호(1980; 1989) : 근래 인구증가에 따른 벼농사 지역 안의 구릉지나 산지사면의 개간, 강한 서풍으로 인한 화재의 연소방지(정장호, 1980, 208; 정장호, 1989, 274).

④ 홍경희(1985) : 저산성 산지 발달 및 평야 발달 미약으로 인한 농경지의 연속성 결여, 얇은 지하수면, 일반적 건조, 풍부한 용수 확보, 강풍 대비, 조선조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 비교적 넓은 농경지, 외지에서의 복귀민 및 유입민의 산거(홍경희, 1985, 198).

⑤ 권혁재(1995) : 넓게 분포하는 구릉지, 물이 귀한 구릉지, 개간 역사가 오래지 않은(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간된) 구릉지(권혁재, 1995, 254).

⑥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 : 발농사의 중시, 통작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의 자기 밭 내부 입지(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 2000, 123;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150).

⑦ 권혁재(2003) : 소기복 파랑상의 구릉지의 넓은 발달, 소기복의 작은 구릉지에서의 발농사 위주의 농업활동, 토양 척박 및 물(식수)의 희소로 인한 농경지 개간 및 주민 정착의 지연, 자식 분가시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짓되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권혁재, 2003, 464).

⑧ 전중환외(2005) : 지형(100~3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 폭이 좁은 곡저지, 하천과 평지의 미약한 발달, 탁월한 기복의 산지와 구릉지, 규모가 작고 불연속 형태의 경지), 토양(배수가 좋은 화강암 풍화토, 굽고 거친 토양, 조강한 토양), 물(얕은 지하수면, 비교적 풍부한 식수원), 고려·조선시대 가적운하 개착공사 및 조선시대 안면도-태안 남면 간 바다개착공사로 인한 대규모 노력 동원에 대한 기피 응거, 왜구의 침입과 임진왜란·병자호란 시 피난지 및 낙향지로 선호, 경지의 소규모모성과 불연속성으로 인한 가옥의 개별경지 밀착, 각자 소유의 생산공간(밭) 안쪽에 가옥 마련, 풍수사상이나 신분관계, 토지 이용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또는 과거 집단거주시 경험한 피해의식에서 기인한 택지 선정시의 독립 지향적 관행(택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자기 소유의 경지에 위치해야 하며 타인의 택지에 근접하지 않는다는 관행, 택지는 자기 소유지이어야 하며 타인의 택지를 빌리지도 또한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독립지향적, 개인주의적 사고)(전중환외, 2005, 188-198).

⑨ NGII(2010) : 1960년대 농경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간석지 개척(NGII, 2010, 158).

⑩ 이전(2011) : 낮은 구릉성 산지 사이의 좁은 곡저지의 분산적 발달 및 완사면의 발달(하천과 충적평야의 아주 미약한 발달), 연중 불어오는 해풍, 곡저지에서 낮은 지하수면으로 인한 우물의 산재, 지표수가 부족한 구릉지에서의 발농사 발달, 발농사의 논농사 대비 크지 않은 공동작업의 필요성, 해풍을 피하기 위한 곡저지 입지,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지으면서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전, 2011, 129-132).

한편, 단편적 연구들이 각각 위에서와 같이 제시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 요인을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적 요인]

구릉성 산지 발달 : 계곡과 산지완사면의 분산 분포(국립지리원, 1980), 거주조건이 유리한 200~300m의 구릉성 산지(국립지리원, 1980), 산록완사면의 발달(오홍석, 1980), 100~300m 고도의 구릉성 산지(오홍석, 1980), 태안 전지역의 70%를 점유한 저산성 선지(홍경희, 1985), 300m 내외의 높은 산(권혁재, 1995), 넓게 분포하는 해발 50m 이하의 구릉지(권혁재, 1995), 소기복의 파랑상 구릉지의 넓은 발달(권혁재, 2003), 100~300m의 저산성 산지(전중환외, 2005), 탁월한 기복의 산지와 구릉지(전중환외, 2005), 완사면의 발달(이전, 2011).

하천·평야 미약 발달(폭 좁은 곡저지) : 평야의 미약한 발달(홍경희, 1985), 폭이 좁은 곡저지(전중환 외, 2005), 하천과 평지의 미약한 발달(전중환 외, 2005), 낮은 구릉성 산지 사이의 좁은 곡저지의 분산적 발달(이전, 2011), 하천과 충적평야의 아주 미약한 발달(이전, 2011).

곡저지 얕은 지하수면(곡저지 물 풍부성) : 얕은 지하수면에 기인한 풍부한 용수(국립지리원, 1980), 풍부한 용수(홍경희, 1985), 유리한 수리조건(오홍석, 1980), 유리한 용수조건(오홍석, 1980), 독립가구 전용의 많은 우물(오홍석, 1980), 비교적 풍부한 식수원(전중환 외, 2005), 곡저지에서 낮은 지하수면으로 인한 우물의 산재(이전, 2011).

구릉지 척박 토양(구릉지 물 희소성) : 일반적 건조성(홍경희, 1985), 물이 귀한 구릉지(권혁재, 1995), 토양 척박 및 물(식수) 희소성(권혁재, 2003), 굽고 거친 토양(전중환외, 2005), 조강한 토양(전중환외, 2005), 지표수가 부족한 구릉지(이전, 2011).

배수 양호성 : 배수가 좋은 화강암 풍화토(전중환외, 2005).

강한 해풍 : 강한 서풍으로 인한 화재연소방지(정장호, 1980; 정장호, 1989), 가옥구조나 높은 굴뚝(정장호, 1980; 정장호, 1989), 강풍대비(홍경희, 1985), 강풍지대(국립지리원, 1980), 연소방화(국립지리원, 1980), 강풍지역(오홍석, 1980), 높은 상징적 굴뚝과 개성있는 온돌문화(오홍석, 1980), 곡부의 미분화와 방화(오홍석, 1980), 연중 불어오는 해풍(이전, 2011).

[사회적 요인]

산지사면 개간 : 벼농사 지역 안의 구릉지나 산지사면 개간(정장호, 1980; 정장호, 1989).

간석지 개척 : 대규모의 간석지 개척(NGII, 2010).

노력동원 기피·은거 : 양대개착공사(고려·조선시대의 가적운하 개착공사 및 조선시대의 안면도-태안 남면간 바다 개착공사)로 인한 대규모 노력동원에 대한 기피·은거(전중환 외, 2005), 가적운하공사의 노력동원 기피·은거(오홍석, 1980).

왜구·전란 도피·은거 : 여말선초 왜구로부터의 안전 추구(오홍석, 1980), 임진병자 전란기 왕도거주 양반계급의 도피처 선정(오홍석, 1980), 삼국시대 이래 왜구의 빈번한 침몰로 인한 도피·은거(전중환외, 2005), 임진왜란·병자호란시의 피난지·낙향지 선호(전중환외, 2005), 왜구침입·전시피난(국립지리원).

짧은 개간 역사 : 조선초 초기에 형성(홍경희, 1985), 역사가 오래지 않은 구릉지 개간(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구릉지 개간 또는 야산 개발)(권혁재, 1995), 구릉지의 척박한 토양과 귀한 물(식수)로 인한 농경지 개간과 주민 정착 지연(권혁재, 2003), 1960년대에 농경지 확보를 위한 시행(NGII, 2010).

외지 복귀·유입 : 비교적 넓은 농경지에 외부에서의 다수의 복귀민 및 유입민의 산거(홍경희, 1985).

발농사 중시 : 발농사가 중요한 지역(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 2000;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전작의 보편성(오홍석, 1980), 발농사 대비 논농사의 크지 않은 공동작업의 필요성(이전, 2011).

풍수사상 : 풍수사상(전중환외, 2005).

신분관계 : 신분관계(전중환외, 2005).

과거 집단거주 피해의식 : 과거 집단거주시 경험한 피해의식에서 기인한 택지 선정시의 독립 지향적 관행(전중환외, 2005).

자기 소유경지 내 택지 선정 : 통작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의 자기 밭 내부 입지(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 2000;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자식 분가시 자기소유 밭에 집을 짓되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는 풍습(권혁재, 2003), 각자 소유의 생산공간(밭) 안쪽에 가옥 마련(전중환외, 2005), 택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자기 소유의 경지에 위치해야 하며 타인의 택지에 근접하지 않는다는 관행(전중환외, 2005), 택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타인의 택지를 빌리지도 또한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독립지향적, 개인주의적 사고(전중환외, 2005), 자기 소유의 밭에 집을 지으면서 남의 집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전, 2011).

소규모 불연속 경지 : 계곡과 산지완사면의 분산 분포(국립지리원, 1980), 착잡하게 얽혀있는 곡저(오홍석, 1980), 농경지의 연속성 결여(홍경희, 1985), 경지의 소규모성과 불연속성으로 인한 가옥의 개별 경지 밀착(전중환외, 2005), 좁은 곡저지의 분산적 발달(이전, 2011).

인구증가 : 근래의 인구증가(정장호, 1980; 정장호, 1989).

위에서 태안반도 산촌형성의 요인에 관한 단편적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연구자별로 그리고 요인의 종류별로 정리했는데, 이를 보다 더 압축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거하여 태안반도 산촌형성 요인을 요인별 연구자로 보면, '구릉성 산지 발달'이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홍경희(1985), 권혁재(1995), 권혁재(2003), 전중환외(2005), 이전(2011) 등 7명의 가장 많은 연구자의 의해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은 각 5명의 '곡저지 얽은 지하수면'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홍경희(1985), 전중환 외(2005), 이전(2011)], '구릉지 척박토양' [홍경희(1985), 권혁재(1995), 권혁재(2003), 전중환외(2005), 이전(2011)]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홍경희(1985), 전중환 외(2005), 이전(2011)], 각 4명의 '강한 해풍' [국립지리원(1980), 정장호(1980; 1989), 홍경희(1985), 이전(2011)], '짧은 개간 역사' [정장호(1980; 1989), 권혁재(1995), 권혁재(2003), NGII(2010)], '발농사 중시' [오홍석(1980),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 권혁재(2003), 전중환외(2005)] 및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 권혁재(2003), 전중환외(2005), 이전(2011)], 각 3명의 '하천·평야 미약 발달' [홍경희(1985), 전중환외(2005), 이전(2011)], '노력동원 기피·은거'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전중환외(2005)] 및 '왜구·왜란 도피·은거' [국립지리원(1980), 오홍석(1980), 전중환외(2005)], 2명의 '외지 복귀·유입' [오홍석(1980), 홍경희(1985)], 각 1명의 '배수 양호성' [전중환외(2005)], '산지사면 개간' [정장호(1980; 1989)], '간석지 개척' [NGII(2010)], '풍수사상' [전중환외(2005)], '신분관계' [전중환외(2005)], '과거 집단거주 피해의식' [전중환외(2005)] 및 '인구증가' [정장호(1980; 1989)]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 산촌형성 요인을 연구자별 요인으로 보면, 전중환 외(2005)가 가장 많은 13건으로 구릉성 산지 발

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배수 양호성,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과거 집단 거주 피해의식,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소규모 불연속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홍석(1980), 홍경희(1985) 및 이전(2011)은 각 7건씩 제시하고 있는데, 오홍석(1980)은 구릉성 산지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를, 홍경희(1985)는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강한 해풍 및 외지 복귀·유입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를, 이전(2011)은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강한 해풍,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국립지리원(1980)은 구릉성 산지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강한 해풍,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의 6건을 제시하고 있고, 권혁재(2003)는 구릉성 산지 발달, 구릉지 척박토양, 짧은 개간 역사,

발농사 중시 및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의 5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장호(1980; 1989)는 강한 해풍, 산지사면 개간, 짧은 개간 역사 및 인구증가의 4건을 제시하고 있고, 권혁재(1995)는 구릉성 산지 발달, 구릉지 척박토양 및 짧은 개간 역사의 3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 및 NGII(2010)는 각 2건씩 제시하고 있는데,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는 발농사 중시 및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을, NGII(2010)는 간석지 개척 및 짧은 개간 역사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표 1).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인문지리학, 취락지리학, 촌락지리학, 한국지리에 관한 단행본 형태의 저술 중 일반적 촌락 또는 우리나라의 촌락에 관해 기술하면서 태안반도 촌락형성 요인에 관해 개관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태안반도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그나마 촌락형태로서의 집촌과 산촌 모두의 형성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산촌의

표 1.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의 요인 분류

연구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 평야 미약 발달	배수 양호성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 토양	강한 해풍	산지사면 개간	간석지 개척	노력동원 기피 은거	왜구 전란 도피 은거	짧은 개간 역사	외지 복귀 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과거 집단 거주 피해 의식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 선정	소규모 불연속 경지	인구증가	
국립지리원(1980)	○			○		○			○	○								○		
오홍석(1980)	○			○					○	○		○	○					○		
정장호(1980; 1989)						○	○				○								○	
홍경희(1985)	○	○		○	○	○						○						○		
권혁재(1995)	○				○															
제29차위원회*(2000)												○					○			
권혁재(2003)	○				○							○					○			
전중환외(2005)	○	○	○	○	○				○	○			○	○	○	○	○	○	○	
NGII(2010)									○											
이전(2011)	○	○		○	○	○											○	○		

* '제29차위원회'는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를,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는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를 각각 의미함.

형성요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단편적 연구들의 기술을 집약하면,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은 전반적으로 '지형, 기후, 식생 등의 자연적 기초' 위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사회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태안반도의 산촌형성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요인으로는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배수 양호성, 강한 해풍 등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산지사면 개간, 간석지 개척,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짧은 개간 역사,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집단거주 폐해의식,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소규모 불연속 경지, 인구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태안반도 산촌형성 요인을 요인별 연구자로 보면, '구릉성 산지 발달'이 7명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은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가 5명, 강한 해풍, 짧은 개간 역사, 발농사 중시 및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이 4명, 하천·평야 미약 발달, 노력동원 기피·은거 및 왜구·왜란 도피·은거가 3명, 외지 복귀·유입이 2명에 의해서 각각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태안반도 산촌형성 요인을 연구자별 요인으로 보면, 전종한 외(2005)가 가장 많은 13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은 오홍석(1980), 홍경희(1985) 및 이전(2011) 7건, 국립지리원(1980) 6건, 권혁재(2003) 5건, 정장호(1980; 1989) 4건, 권혁재(1995) 3건,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2000) 및 NGII(2010) 2건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동향

(1)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개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논문이나 단행본 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봉준(1977)의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문중(1983)의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 이문중(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이문중(1989)의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이문중(1991)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 최기엽(1986)의 「한

국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최기엽(1993)의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전종한(2003)의 '내포지역 해만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제',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의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충청남도지: 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부분은 이문중이 저술한 것이므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결국 실제로는 이봉준, 이문중, 최기엽, 전종한 등의 연구로 대별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들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봉준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

이봉준(1977)의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에 관한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로서 석사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이었는데,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개관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봉준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개관

태안반도의 경우 지형은 저산성 산지와 구릉지가 전 지역의 7할을 점유하고 평야와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여 농경지의 연속성이 결여되었고, 지하수면이 비교적 얇고 토지는 조강(燥強)한 것이 탁월한 것 등, 산촌형성의 자연적 기초가 구비되었다고 하겠다. 본지역의 산촌은 대체로 이씨왕조 초기에 형성되었다고 추측된다. 비교적 넓은 농경지에 다수의 복귀민 및 유입민들이 산거하여 산촌이 형성되었으며, 당시 형성된 산촌형태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왔다고 하겠다. 본지역의 산촌 형성의 요인은 어떤 단일조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특수한 자연적 기초 위에 여말(麗末)에 일어난 인구의 이동과 공백상태, 풍수설에 의한 택지선정, 반상관계(班常關係), 전작(田作) 위주의 영농과 소작제(小作制), 은거(隱居) 등의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 하겠다(이봉준, 1977, 42).

㉢ 이봉준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정리

이봉준(1977)이 제시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을 보면, 자연적 요인으로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 토양 등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노력 동원 기피·은거, 왜구 전란 도피·은거,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소규모 불연속 경지, 소작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봉준(1977)의 연구 결과는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한국지리, 인문지리, 촌락지리, 취락지리 등에 관한 저술에서 태안반도 등의 촌락형성, 특히 산촌형성요인에 관한 기술시 선행연구 결과로 주로 인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봉준(1977)의 연구에서 제시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은 모두 12개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가장 많은 산촌형성요인을 제시한 전종한 외(2005)의 13개 보다 1개 적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으로 제시된 것들 중 이봉준(197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자연적 요인으로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지지 얇은 지하수면 및 구릉지 척박 토양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전란 도피·은거,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및 소규모 불연속 경지가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으로 제시된 것들 중 이봉준(1977)의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자연적 요인으로 배수 양호성 및 강한 해풍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산지사면 개척, 간석지 개척, 짧은 개간 역사, 과거 집단 거주 피해의식, 자기 소유경지내 택지선정 등이 있다.

이봉준(1977)의 연구에서 제시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 중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는 소작제가 있다.

**② 이문중·서산시지편찬위원회·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

이문중은 장기간에 걸친 현지답사와 문헌조사에 의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의 일련의 연구들이 그것들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부분의 기술도 이문중에 의한 것이므로 이문중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가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이문중·서산시지편찬위원회·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개관**

이문중(1983)의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 : 우리나라의 취락은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집촌이 탁월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인류 거주역사가 오랜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촌이 널리 발달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곳은 100~300m 고도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거주조건이 유리한 곡지와 산록완사면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위에, 답작에 비해 협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전작이 보편적이고, 특히 지하수면이 얇아 산촌 발달에 알맞다(이문중, 1983, 65).

태안반도 촌락 형성의 배경을 경지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이조 초기의 호별 간전면적(壘田面積)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평균 소유면적의 10배 이상이며, 신라시대의 민정문서(民政文書) 당시 각 촌락마다 100결 이상되는 경지내에 겨우 8~15호 정도의 가옥이 분포하여 산촌 형태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면 1호당 10~17결을 소유했던 이 지역에서도 산촌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겠다(이문중, 1983, 66).

이 지역의 산촌적 농가배열의 패턴은 분가양식(分家樣式)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분가양식은 일반적으로 본가(本家)에서 떨어진 곳에 자기(自家)를 분가시키는데, 가까우면 50m 내외이며, 대체로 먼 거리를 두고 있다(이문중, 1983, 66). 즉, 택지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전경지(田耕地)에 위치해야 하며, 타인의 택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사고방식이다(이문중, 1983, 67). 이와 같이 태안반도는 자연적 기초 위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복합으로 우리나라 전형적인 산촌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이문중, 1983, 66).

이문중(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 : 태안반도는 거의 전지역이 저산성 산지와 구릉지로 되어 있고, 평야와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여 경지의 연속성이 적고 지하수면이 비교적 얇고, 토지는 조강(燥剛)한 곳이 많은 등 산촌형성의 자연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이문중, 1986, 368).

선사시대 이래 인류의 거주역사를 추적하고 있는 곳이지만, 본격적인 인간의 정착은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부터 이룩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이문중, 1986, 368).

내륙의 삭박면은 개척의 역사가 늦어져 근래까지도 임지(林地)나 황무지로 잔존해 온 곳이며, 이런 곳에서 가장 산촌 혹은 소촌적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이다(이문중, 1986, 368).

해미·고북면 일대의 전통 오랜 기존촌락들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산록이나 개석곡지(開析谷地, 골)에 입지하여 동족지연공동체(同族地緣共同體)를 형성하고 집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반면, 신상리 일대, 특히 농장촌을 중심으로 한 비행기들 및 그 인근지역은 1930년대 이후 개간이 시작된 곳이다. 이 신개간지는 해안으로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고 있는 탁상 침식면으로서 표면우수가 없고 왜송(倭松)이나 황무지로 오랫동안 잔존해 왔던 곳이다(이문중, 1986, 368). 이 신개간지 촌락들은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 8.15 해방, 6.25 동란 등 사회경제적 과정에 병행해서 지역적 확산의 단계를 가진다. 즉, 이곳은 일제자본에 의한 초기 입식자들에 의해 개간된 '농장촌', 6.25 사변 중 황해도 월남민들에 의하여 개간된 '월남민방'과 '새터' 주변, 경상도로부터의 이주민 집단에 의해서 개간된 '성뚝' 주변의 사회공간적 분화가 시기를 달리하여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개척집단으로 구성되는 이들 촌락들은 전형적 산촌형태를 이루고 있다(이문중, 1986, 369).

산거양식(散居樣式)이란 가옥과 토지의 결합이 가옥과 가옥과의 결합보다 강한 특성을 수반한다. 해미·고북면 일대와 태안을 평천리·인평리 일대 어디에서나 가옥과 경지의 연결현상(連接現象)과 일괴(一塊)의 보유경지현상(保有耕地現象)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이것은 초기의 개간과 입식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부분적·개별적으로 입식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성에 의한 가옥의 배열과정을 결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이문중, 1986, 369).

기존촌락에서의 가옥과 경지의 연결현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가옥과 경지를 가지려는 분가양식의 관습에서도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이문중, 1986, 369). 또한, 산촌지역에서의 변화의 한 측면은 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에서 점차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로의 전환이라고 하겠다(이문중, 1986, 369).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 태안반도 지역에서 본격적인 취락의 형성은 왜구의 침

입이 없어지고 임진·병자의 2대 전란을 겪고난 이후부터였다. 이러한 사실은 「택리지(擇里志)」의 기록이나 동족촌의 성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입증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황폐화되었던 경지를 복구·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간정책으로 조선 후기까지는 상당한 지역에 걸쳐 개척이 진전되어 있었다고 본다. 일제시대에 들어오면 인구증가와 산미증산계획으로 삼림의 개간과 해만의 간척이 촉진되었으며, 해방 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6.25 동란중 피란민 집단의 정착, 그리고 1960년대에는 무상지원양곡(PL 480)에 의한 임야의 개간과 해만의 간척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태안반도 촌락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이문중, 1988, 142).

임야개척과정은 인간집단이 토지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삼림개척의 역사라고 할만하다. 「輿地圖書(여지도서)」의 자료 분석이나 해미·고북면 일원과 태안을 근교의 사례지역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오랜 전통을 갖는 기존촌락들은 이미 18세기 중엽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산록이나 '골'에 입지하고 있다. 이 곳은 자연우수의 이용이 원활하여 일찍부터 수리개관에 의한 수전농업으로서의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일반농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다른없는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이문중, 1988, 142).

반면,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난 구릉지의 개척이 지연되어 최근까지도 임야 혹은 황무지로 남아 있던 곳이 많다. 이런 임야 혹은 황무지는 소위 한광처(閑曠處)로 조선시대 무전민(無田民)들의 개척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도 이런 곳에서 가장 모식적인 임야개척에 의한 촌락형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개척의 유물인 도상의 잔존림, 경지와 가옥의 연결현상, 태안반도의 독특한 분가양식이나 택지선정방식 등 가장 산촌적 요소와 경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도 이런 곳이다. 이 신개척지는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 8.15 해방과 6.25 동란, 1960년대 이후의 정부의 농지확장정책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집단의 정착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 전개과정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촌락은 우리나라 촌락발달의 한 유형으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이문중, 1988, 142).

기존촌락은 소위 ‘골’에 입지하여 수전농업으로서의 경지기반의 확보와 더불어 인근의 임야개간에 의해 생활공간을 확대했는데, 이곳에서는 특히 “택지는 반드시 자기소유의 토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분가양식)이 촌락의 형성이나 형태를 결정지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이문중, 1988, 143).

경지와 가옥과의 관계로 볼 때, 해미·고북면 일대이든, 태안 근교 평천리·인평리 일대 이든, 가촌촌락이든, 신개간지 촌락이든, 삼림을 벌채하고 개척이 이룩된 곳이면, 산촌의 기본적 특징인 일괴경지현상과 가옥과 경지의 연접현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거양식(散居樣式)이란 가옥과 토지의 결합이 가옥과 가옥과의 결합보다 강하다”는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안반도의 거의 전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릉지 위에서 촌락의 형태를 결정시켜 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간주된다(이문중, 1988, 143).

조선시대에도 태안반도에서는 이미 집촌지역과 산촌지역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졌다고 본다. 즉 ‘골’의 입지유형인 집촌과 구릉지 위의 유형인 산촌이 그것이다. 또한, 이 양지역의 개척은 그 개척자들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성격을 달리했다고 해석된다. 이는 우리나라 촌락의 형성·발달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문중, 1988, 143).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록이나 골에서는 수전농업에 의한 집촌, 구릉지 위에서는 임야개척과 관련해서 산촌 혹은 소촌(小村)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촌의 발달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의 화전지대에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 발달한다는 종래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이문중, 1988, 143).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은 해만개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태안반도에서는 ‘어염수(魚鹽柴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와 소금, 소금을 구워내기 위한 화목(火木),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水), 이것은 태안반도지역에서 촌락입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곳이라 바로 ‘골’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다. 태안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주민들도 그 연대를 알지 못하는 오래된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과거에 제염을 하던 장소인 ‘벚터’, ‘벚말’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문중, 1988, 143).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한편으로 바다를 간척하고, 한편으로는 배후구릉지 위의 임야를 개간하면서 촌락의 정착성을 강화·확보시켜 왔다. 즉, 태안반도에서는 해만이 농업용 경지와 염전으로 개척되면서 동시에 내륙 쪽의 구릉지 위의 임야도 개척되어 가는 방향으로 개척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가옥의 정착은 간척지 안으로 보다는 간척지 주변으로의 정착이 유도됨으로서 동진강 하구의 대규모 간척촌에서와 같은 규칙적인 촌락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간척지의 규모가 작은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초기의 간척과 정착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문중, 1988, 143).

또한, 과거 어전(漁箭)이나 염벗 중심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던 때의 촌락은 만입의 바닷가 부근에 집촌형(集村型)으로 분포하던 것이 배후의 구릉지 위로 올라와서 임야를 개간하는 단계에서는 밭(田) 중심의 경지개척, 분가양식이나 택지선정방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산촌형(散村型)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태안반도 촌락 형성의 한 특징이 있다(이문중, 1988, 143).

태안반도 일대의 경우 거주역사가 수백년되는 곳에서도 인구규모가 20~30명 정도로 기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동쪽에 의한 집촌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광암김씨(廣岩金氏)나 양잠리가씨(養蠶里賈氏)의 인구증가와 거주지 확산의 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최초의 입향조(入鄉祖)의 정착지에 가옥이 집중하여 집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두 씨족집단의 경우 17세기 초 내지 중엽에 입향하였지만 이후 약 300년간 가옥의 증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계속적으로 집촌화 과정을 밟아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이문중, 1988, 144).

자손들의 분가에 의한 동족촌의 확산은 면역(面域) 정도의 영역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범위 속에서 몇 개의 1차적 분산 이주지를 중심으로 다시 그 인근에 2차·3차의 분가적 확산(分家的 擴散)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점, 분가에 의한 촌락의 형성은 파별집단(派別集團)의 독립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파별집중(派別集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촌(自然村)은 다시 세분된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

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凝集)으로 나누어 짐으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족세(族勢)가 강한 씨족은 거주지의 확산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씨족들은 몇 개의 자연촌의 범위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이문중, 1988, 144).

태안반도 촌락의 형성·발달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각 요인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여 왔다. 또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선후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이문중, 1988, 144).

그리하여 산록이나 골에서는 집촌적 형태로, 구릉지 위에서는 산촌 내지 소촌적 형태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해만)에서는 배후의 임야개척과 전면의 해만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이문중, 1988, 144).

이문중(1989)의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 촌락의 형성·발달에 있어서 해만개척, 임야개척 및 씨족집단의 3요인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여 왔다. 화곡리 일대에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전면의 해만개척과 배후의 임야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선후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이문중, 1989, 294). 특히, 해안에서 화림(火鹽)에 종사하던 때에 집촌형 취락이 구릉지 위의 임야의 개척으로 경지가 확대되면서 부터는 산촌형으로 이행되어 간 것은 태안반도 일대의 경우와 비슷하다(이문중, 1989, 289). 일반적으로 산록이나 골에서는 집촌적 형태, 구릉지 위에서는 산촌 내지 소촌적 형태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이문중, 1989, 294).

자손들의 분가에 의한 동족촌의 형성은 시간의 진전과 함께 몇 개의 분산이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인근에 2차·3차의 분가적 확산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점, 분가에 의한 촌락의 형성은 혈통 단위로 형성되는 파벌집단의 독립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이 파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촌은 다시 세분된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지므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문중, 1989, 294).

이문중(1991)의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 혈통 단위로 형성되는 동족의 자연적 집중이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 자손들의 분가에 의한 동족촌의 확산은 면역 정도에 걸친 것이었으며, 이러한 범위에 걸친 몇 개의 1차적 분산이주를 중심으로 다시 그 인근에 2·3차의 분가적 확산이 계속되는 과정이었다는 점,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집촌화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촌의 형성은 파벌집중 혹은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이문중, 1991, 331).

또한, 족세가 강한 씨족은 거주지의 확산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씨족들은 몇 개의 자연촌 범위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이문중, 1991, 331).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의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 태안반도 지역에서의 가옥의 입지는 구릉지에 약 43%, 골에 약 36%가 입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전체 가옥의 약 76%가 입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옥의 입지가 태안반도 지역에서는 산촌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의 촌락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는 집촌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일대에서는 산촌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간의 거주 역사가 오래되고 평탄한 구릉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촌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끌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6).

태안반도 지역에서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거주가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군현제도의 개편, 세곡미의 안전수송을 위한 운하의 개착, 임진·병자의 양대전란, 유교적 영향에 의한 동족촌의 형성 등 여러 역사적 사실이 태안반도 촌락 형성에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태안반도 지역에서 경지의 개척과 촌락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룩되기 시작한 것은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임진·병자의 양대전란을 겪고난 이후부터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황폐화되었던 경지를 복구·확대하기 위한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개간정책으로 조선 후기까지는 상당한 지역에 걸쳐 개척이 진전되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7).

일제시대에 접어들면 인구의 증가, 일제토지자본의 상륙,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 등으로 임야와 해만의 개척이 촉진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6.25 동란 중 북한 피난민이나 난민집단의 대규모 정착, 그리고 특히 1960년대 미국의 무상지원양곡(PL480)에 의한 임야의 개간과 해만의 간척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태안반도 촌락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7).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서산지방의 촌락의 형성은 임야개척(林野開拓), 해만개척(海灣開拓) 및 씨족집단(氏族集團)의 생활공간 확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7).

첫째, 서산지방의 촌락 형성은 임야개척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서산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촌락은 임야로 덮여 있던 곳에 인간집단이 뛰어 들어가서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가옥과 경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서산지방에서는 최근까지도 나무를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임야개척의 현장을 도처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었으며, 마을이나 가옥 주변에는 도상(島狀)의 잔존림(殘存林)이 있다. 임야개척지에서는 가옥과 경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산촌경관의 특징이다. 즉, 태안반도의 촌락은 임야로 덮여 있던 곳에 인간집단이 뛰어 들어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가옥과 경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옥과 경지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산촌경관이 나타나게 되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7).

둘째, 서산지방의 촌락 형성은 해만개척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서산지방에는 농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개척된 곳이 많은데, 이러한 곳은 어염시수, 즉 물고기, 소금, 소금을 구워내기 위한 팻감 및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은 촌락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만의 간척지를 간척할 경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논으로 개척되었고, 물을 얻기 어려운 곳이면 염전으로 개척되었다. 간척지가 논으로 개척되기 시작한 경우도 해안에서 멀어져 바다 쪽으로 전진하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에 도달하면 염전으로 전환되어 간척지의 안쪽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바깥쪽에 염전이 분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태안반도에서 육지의 굴곡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오래전에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고, 과거에 소금을 굽던 장소인 벃터 또는 벃말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곳곳에 있다(서산시지편찬

위원회, 1998, 118).

셋째, 서산지방의 촌락 형성은 씨족집단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촌락과 같이 동족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경우 특정 씨족이 어떤 곳에 입항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후 그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 그들의 주변지역을 개척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촌락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서산지방도 예외가 아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충청남도지 : 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 해미·고북면 지역에서 해미천 연변과 같이 자연적 지표수(하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남정리(南井里)·고정리(古井里) 지역에서와 같이 ‘골’에 입지하여 샘이나 우물에 의한 풍부한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일반 농촌 지역에서와 같이 역사가 오랜 벼농사 중심의 집촌 형태가 형성·발달하였다. 하지만, 비행기들에서와 같이 지하수면이 깊은 지역에서는 근래까지도 임야로 덮여 있는 황무지로 내려오다가 이런 지역이 개간되면서 가장 산촌적인 경관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태안반도 전체 지역의 촌락 형태를 설명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고,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 전체 촌락의 형태·발달의 설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8).

평천리 명씨(明氏) 마을에서는 모식적인 분가양식(分家樣式)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본가(本家)에서 자가(子家)를 분가시키는데 가까우면 50m 내외이며, 대체로 먼 거리를 두고 분가시킨다(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8-99). 이 때, 택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입지시키며, 타인의 택지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씨 마을에서는 가장 위쪽에 선조의 묘를 두고, 그 아래에 종가(본가)가 위치하며, 2남·3남은 장남인 본가보다 아래로 배치함으로써 하향식 분가를 취한다. 이와 같이 분가양식은 평천리의 촌락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9).

㉔ **이문중·서산시지편찬위원회·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정리**

이문중(1983)의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해 연구하면서 “인류 거주역의 역사가 오랜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촌이 널리 발

달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산촌에 한정하여 그의 형성요인으로 구릉성 산지 발달, 전작의 보편성, 얇은 지하수면, 본가 및 자가의 원거리 분가양식, 택지의 자기 소유 전경지 내 입지 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이조 초기의 호별 간전면적을 신라시대의 민정문서 당시 호별 소유 경지면적과 비교하여 이조 초기 본지역의 촌락 형태가 산촌이었음을 추정하면서 본지역의 전형적 산촌은 자연적 기초 위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복합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문종이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1988년 이후의 일련의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했던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이라는 체계적 이론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문종(1983)의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는 이후 이문종에 의해 수행된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1986),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1988),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1989),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1991) 등의 일련의 연구들의 서론적 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이문종(1983)의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를 확장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태안반도에서 본격적인 인간의 정착은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부터”라는 전제하에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을 집촌과 산촌으로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각각의 형성시기, 입지 및 형성주체에 관해 명기하고 있다.

즉,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전통 오랜 기존촌락은 18세기 중엽 이전 산록이나 개석곡지(골)에 입지하여 동족자연공동체를 형성하고 집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신개척지는 1930년대 이후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 8.15 해방, 6.25 동란 등 사회경제적 과정에 병행해서 표면유수가 없고 왜송이나 황무지로 오랫동안 잔존해 왔던 탁상침식면에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이주 개척집단에 의한 사회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형적 산촌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산촌형성 요인으로서 경지 연속성 결여 및 토지 조각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사회경제적 과정에 따른 사회공간적 분화가 가옥 경지연접현상, 일피보유경지현상 및 분가

양식관습에 의거하여 진행되면서 산촌이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고, 산촌지역에서의 변화의 한 측면으로 혈연공동체에서 점차 자연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이문종이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1988년 이후의 일련의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했던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 중에서 ‘임야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문종(1986)의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는 아직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해만개척’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문종(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는 이문종의 박사학위논문으로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으로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을 처음으로 동시에 언급하면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대하여 촌락입지, 농업형태 등에 따라서 촌락형태가 집촌과 산촌으로 분화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산록이나 골에서 수전농업에 종사하면서 집촌을 형성한 이후 구릉지로 진출하여 임야개척에 따라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다.

둘째, 해만개척에 따라 어전어업이나 염벗염업에 종사하면서 집촌을 형성한 이후 구릉지로 진출하여 임야개척에 따라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다.

셋째, 구릉지에서의 임야개척과정에서 ‘파별 자연촌이 세분 지형단위에 적응하여 소수의 응집으로 분화되는 분가양식’(동족에 의한 집촌화 과정의 미진행, 즉 동족에 의한 산촌 혹은 소촌의 형성)이나 ‘가옥 경지 근접 원리에 따른 택지선정방식’ 등에 따라 보다 전형적인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을 촌락입지, 농업형태 등에 따른 촌락형태의 분화와 관련하여 보면, 산록이나 골에서는 집촌적 형태로, 구릉지 위에서는 산촌 내지 소촌적 형태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해만)에서는 배후의 임야개척과 전면의 해만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보다 단순화 하면, 조선시대에도 태안반도에서는 이미 집촌지역과 산촌지역이라는 이중구조를 가

졌는데, ‘골’의 입지유형인 집촌과 구릉지 위의 유형인 산촌이 그것이다.

이문중(1989)의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연구는 이문중(1988)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첫째, 촌락의 형성·발달에 있어서 해만개척, 임야개척 및 씨족집단의 3요인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여 왔다. 둘째, 산록이나 골에서는 집촌적 형태, 구릉지 위에서는 산촌 내지 소촌적 형태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셋째, 파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촌은 다시 세분된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지므로서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한편,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는 촌락형성요인으로서의 해만개척 및 임야개척의 시계열적 전개 순서와 관련하여 “해만개척에 따라 어전 어업이나 염범업에 종사하면서 집촌을 형성하고, 이후 구릉지로 진출하여 임야개척에 따라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나, 이문중(1989)의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해만)에서는 전면의 해만개척과 배후의 임야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선행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고 다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문중(1991)의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연구는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와 이문중(1989)의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촌의 형성은 파벌집중 혹은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는 결론에 재도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문중(1991)의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연구는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집촌화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문중(1988)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계속적으로 집촌화 과정을 밟아 갈 것

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와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족세가 강한 씨족은 거주지의 확산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씨족들은 몇 개의 자연촌 범위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에 재도달하고 있다.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의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는 이문중이 집필한 것인데, 이 저술에서 이문중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으로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을 재차 제시하고 있는 바, 이것들은 이문중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1988)에서 거시적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구명한 것이고, 이문중이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1989)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의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에서 이문중이 주장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으로서의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은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1991) 등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충청남도지 : 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은 이문중이 집필한 것인데, 이 저술에서 이문중은 첫째, 태안반도의 촌락형성과 관련하여 골에서는 역사시대부터 벼농사에 종사하는 집촌이 발달했고, 구릉지에서는 근래에 임야를 개간하면서 밭농사에 종사하는 산촌이 발달했으며, 둘째, 산촌의 경우 원거리 분가 및 가옥·경지 연결 현상에 의해 전형적 산촌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첫째 사항은 이문중의 일련의 연구들, 즉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1986),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1988),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1989)에서 이미 밝혀진 것을 재확인한 것이고, 둘째 사항 역시 이문중의 일련의 연구들, 즉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1986),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1988),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1989) 등에서 이미 밝혀진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문중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의 요약 :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과 이문중이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산시지편찬

위원회(1998)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저술들을 개관하고 정리한 결과, 이문종의 태안반도 촌락형성론은 임야개척, 해만개척 및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안반도에서 본격적인 인간의 정착은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부터이다(이문종, 1986, 36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은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과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으로 정리되는데, 이를 촌락입지, 농업형태 및 촌락형태와 관련지어 설명하면(이문종, 1988, 142-144), 첫째, 산록이나 골에서 수전농업에 종사하면서 집촌을 형성한 이후 구릉지로 진출하여 임야개척에 따라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고, 둘째, 해만개척에 따라 어전어업이나 연못어업에 종사하면서 집촌을 형성한 이후 구릉지로 진출하여 임야개척에 따라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고, 셋째, 구릉지에서의 임야개척과정에서 ‘파별 자연촌이 세분 지형단위에 적응하여 소수의 응집으로 분화되는 분가양식’(동쪽에 의한 집촌화 과정의 미진행, 즉 동쪽에 의한 산촌 혹은 소촌의 형성)이나 ‘가옥경지 근접 원리에 따른 택지선정방식’ 등에 따라 보다 전형적인 산촌 혹은 소촌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을 촌락입지, 농업형태 등에 따른 촌락형태의 분화와 관련하여 보면, 산록이나 골에서는 집촌적 형태로, 구릉지 위에서는 산촌 내지 소촌적 형태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해만)에서는 배후의 임야개척과 전면의 해만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이문종, 1988, 144), 이를 보다 단순화 하면, 조선 시대에도 태안반도에서는 이미 집촌지역과 산촌지역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졌는데, ‘골’의 입지유형인 집촌과 구릉지 위의 유형인 산촌이 그것이다(이문종, 1988, 143).

특히,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을 씨족집단의 공간적 확산과 관련하여 보면, 자연촌의 형성은 파별집중 혹은 지형단위 등에 적응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이문종, 1991, 331). 즉, 태안반도의 구릉지에서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집촌화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이문종, 1991, 331). 부연하면, 태안반도의 구릉지에서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계속적으로 집촌화 과정을 밟아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이곳에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이문종, 1988, 144).

또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 과정에서 족세가 강한 씨족은 거주지의 확산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씨족들은 몇 개의 자연촌 범위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문종, 1991, 331).

③ 최기엽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

최기엽도 이문종과 비슷한 시기에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현지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최기엽(1985; 1986; 1993)의 일련의 연구들이 그것들이다.

㉠ 최기엽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개관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 서산군 고북면 일원의 촌락들은 일차적으로 그 형태에 의하여 2개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각 유형은 지형환경, 형성시기,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도 이원화된다(최기엽, 1985, 104).

전통오랜 기존촌락들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산록이나 개석곡지(골)에 입지하여 동족 자연공동체를 형성한다. 이같은 사회적 기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집촌을 이루게 되었다(최기엽, 1985, 104). 반면, 신개간지 촌락들은 대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20m 고도 내외의 탁상침식지에 입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제의 토지자본의 상륙으로부터 1962년 수리시설의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경제적 과정에 병행하는 지역적 확산의 단계를 가진다.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집단으로 구성되는 이 촌락들은 산촌 형태를 이룬다(최기엽, 1985, 104).

전통적인 기존촌락들의 생활기반은 자연유수의 개관에 의한 답작농경(畝作農耕)이었거나 혹은 해안의 특화된 기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의 사기소리(沙器所里), 기포리(機浦里) 등의 지명이 후자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에 비교적 큰 규모의 촌락을 이루었던 장소는 경지기반의 면적이 보다 넓었던 곳, 자연유수의 이용이 원활하였던 곳과 어떤 유형의 특화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이었다. 이 지역의 동부산지의 산록과 해안에 비교적 규모가 큰 촌락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예증하고 있다. 기존촌락 중 침식평탄지 말단의 협소한 개석지(골)에 입지하였던 촌락들은 소규모의 기초지역적 단위를 형성하였었다. 이러한 기초지역

적 규모와 입지의 대응은 촌락민의 사회집단적 특성의 지역분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기엽, 1985, 104).

이 지역 중 산촌이 발달한 신상리 일원, 특히 농장촌을 중심으로 한 비행기들 및 그 인근지역은 1930년대 이후 일본인 토지자본에 의하여 개간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왜송지나 황지로 오랫동안 잔존하였었다. 초기 입식자들에게 의해서 개간된 농장촌, 6.25 사변중 황해도 월남민들에 의해서 개간된 월남민방과 새터 주변, 경상도로부터의 이주민집단에 의해서 점유된 성목 주변의 3 사회공간적 분화가 시기를 달리하여 형성되었다. 이 신개간지는 해안으로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고 있는 탁상침식면으로서 표면우수가 없고 해안으로 빠지는 개석지가 남서향 혹은 서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삼림지가 곳곳에 도상(鳥狀)으로 잔존하고 있는 평탄지를 이룬다. 삼림지는 최초로 전(田)으로, 다시 반답과정(反畝過程)을 경과하여 규칙적인 구획으로 정리된 수전(水田)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산촌경관의 인상은 단조로움으로 특징을 이룬다(최기엽, 1985, 104).

이 신개간지는 토지조사사업과 일본자본의 토지점유, 일제의 적극적 개간, 농경지확장정책, 해방과 동란, 60년대초의 수리시설완공과 개답사업(開墾事業) 등 일련의 사회적 단계에 대응하여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집단의 입식(入植)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과정은 각기 다른 지역적 전개패턴을 형성시켰다(최기엽, 1985, 104-105). 최초의 분산적 패턴은 동향인집단의 소응집(小凝集)과 같은 소촌적 형태로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경지기반의 협소성과 도시적 취락의 흡입요인들은 촌락의 계속적 응집이나 신입지(新立地)의 확산을 방해하여 촌락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다(최기엽, 1985, 105).

한편, 경지와 가옥과의 관계로 볼 때, 산촌의 기본적인 특징인 일괴경지현상과 경지의 가옥연접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최기엽, 1985, 105). 경관형성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시간적 이행과정이 여건으로서 작용하고 각기 다른 사회집단의 노동, 이동, 장소, 사회적 기능이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촌락경관을 사회경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촌락경관은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형성되고 변화된다(최기엽, 1985, 104).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삼남(三南)을 비롯한 중부이남지역은 대체로 18세기 중반기에 이르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취락(촌

락)의 충전(充填)을 완료한 것 같다. 저습지나 수리(水利)가 힘든 구릉지 등이 후일의 개간을 기대하며 남겨졌다. 이같은 잔존지역의 개간은 근대에 이르러 일제토지자본의 침입과 더불어 시작된다. 서해안과 동해안 인근의 저평한 구침식면상의 임야지와 서해안의 간석지가 그 대표적 예를 이룬다(최기엽, 1986, 141).

서해안의 중부 서산(瑞山)과 남부 고창(高敞), 동해안의 강릉(江陵) 근교의 고도 약 50m 이하의 침식면상의 임야는 일제의 자본침입과 더불어 일인이민(日人移民)이나 근교에서의 이주민에 의하여 개별단위로 소규모적으로 개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산촌경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일제의 침입을 출발점으로 하여 해방, 6.25 동란, 수리시설의 완비, 국가의 농지개간정책에 이르는 시간적 전개과정상에서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응하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전통적 촌락과 단절되면서 특수한 지형단위에 분절되는 이같은 근현대의 촌락경관은 전자(前者)와는 달리 완전히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응하는 경관을 형성하여 한국 촌락의 양극적인 대립을 이룬다. 우리는 이러한 촌락경관을 사회적 과정의 맥락을 통하여 하나의 유형화된 산촌경관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 사회경관으로 설정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최기엽, 1986, 141).

최기엽(1993)의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 해미천 남부의 서산군 고북면 신상리, 신정리 및 석포리의 하단까지 이르는 지역의 침식면상에는 신상리의 비행기들을 중심으로 하여 산촌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경관내용은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패턴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잔존산림, 폐쇄적인 가옥구조, 정비된 경지와 수로, 개간지, 거의 기복이 없는 침식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는 공간적 범위는 침식면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 침식면의 말단, 즉 서안에 가까운 지역에는 소하곡이나 개석곡지의 입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일반집촌이 이 침식면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같은 주변지역과의 대립적 위상관계로 보아서도 이 지역이 하나의 경관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지표의 내용과 내용의 공간적 범위가 정합적 대응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을 산촌경관의 실현으로서 간주할 수 있게 된다(최기엽, 1993, 73-74).

비행기들의 침식평탄지 주변에는 전통이 오래된 기존

촌락들이 집촌적 형태를 형성하여 입지하고 있다. 기존 촌락들은 신개간지 촌락들과는 촌락의 형태를 비롯하여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탁상침식면 중앙부를 차지하는 신개간지'와 '이 침식면 말단의 개석곡지(開析谷地, 개석곡구 [開析谷口]) 즉 골을 생활기반으로 발달한 해안 인근의 기존촌락들'은 일차적인 사회공간분화의 패턴을 이룬다(최기엽, 1993, 76-77). 원래 침식면상의 평탄지는 수리(水利)가 좋지않아 임야지로 잔존하여 왔었는데 반해, 개석지의 말단부에는 수리의 혜택을 이미 조선시대부터 소규모 촌락이 발달하여 왔다. 이 잔존 평탄지가 근·현대에 이르러 대농업 자본의 개입이나 저수지와 도수로의 축조에 의해 수리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경지화되고, 다음에는 다시 밭이 논으로 반답(反畓)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밟는 가운데 산촌이 형성되고, 다시 소촌으로 진전되었으며, 입식정착민의 구성이나 경지소유의 형태와 과정에도 시기나 입지에 따른 특성을 이루어 놓았다(최기엽, 1993, 76).

기존촌락들은 동족지연공동체의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촌락들은 대개의 경우 자연부락에 1개 정도로 한정된 공동우물을 가지고 입지하고 있었다. 우물(井 [정])은 바로 촌락입지의 구체적 장소가 되었다. 상정(上井), 하정(下井), 신정(新井), 고정(古井 [예정]), 남정(南井)의 촌락들은 바로 탁상침식면의 남부, 해안 인근의 개석곡구에 발달한 기존촌락들이다.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부락, 그것이 기초지역적 생활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혈연으로 응집된 생활의 사회적 단위성이 우물과 결합되어 명칭과 장소를 부여받게 된 것이 남정, 신정, 고정, 하정의 촌락들인 것이다. 골(개석곡지)의 답작(畓作)에 생업의 기반을 둔 이들 기존촌락들의 세대증식에 의한 분가와 그에 따른 지역적 확장과정은 상부의 탁상침식면으로 연결되어 면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골에서 다시 이웃 골로의 확대과정이었다. 상부의 침식지에 비하여 보다 나은 토지기반에서 성장한 이들은 침식지의 개간을 회피하고 인근의 기존경지나 골의 개간을 택했다(최기엽, 1993, 78).

산촌경관의 형성은 경제, 기술 수준의 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제형태와의 밀접한 연결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경제형태는 노동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산촌경관은 개간이라는 노동과정이 장소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 구현된 것이다. 경관이란 '내용을 가진

지표공간의 범위'를 일컫는 것인데, 개간이라는 노동과정은 대토지 자본가의 개입이나 수리시설의 축조라는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침식평탄지에 그것의 결과적 산물로서의 경지나 산촌경관을 한정시켜 놓았다고 볼 때, 침식평탄지라는 지표공간의 한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침식평탄지→자본투입의 사회적 과정→노동과정(임야개간)→(산촌)경관내용의 형성'이라는 도식은 경관내용과 공간범위의 정합관계를 선명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구성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경관을 우리는 사회적 경관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최기엽, 1993, 76).

산촌의 형성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 개선에 의한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사회적 분화의 공간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기엽, 1993, 80).

㉔ 최기엽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정리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는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을 유형, 지형환경, 형성시기,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촌락과 신개간지 촌락으로 분류하고, 전통촌락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산록이나 개석곡지(골)에서 동족지연공동체 중심의 집촌을 형성하였고, 신개간지 촌락은 1930년대 중반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으로부터 1962년 수리시설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20m 내외의 탁상침식지에서 일본인, 황해도 월남민, 경상도 이주민 등 여러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산촌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는 집촌 형태의 전통촌락의 경우 경지기반의 면적이 보다 넓었던 곳, 자연유수의 이용이 원활하였던 곳, 특화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에서 큰 규모의 촌락을 형성했고, 협소한 개석지(골)에서 소규모의 촌락을 형성했으며, 답작농경이나 해안특화기능(어업이나 염업)에 종사했고, 산촌 형태의 신개간지 촌락의 경우 해안으로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도상 삼림지가 잔존하고 표면유수가 없는 탁상침식면으로서 해안으로 빠지는 개석지가 남서향 혹은 서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초기엔 임야개척에 의한 발농사에 종사하다가 반답과정을 거쳐서 수전농업에 종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최기엽(1985, 10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

의 산촌지역 연구'는 산촌경관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제 시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여러 사회적 과정이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집단의 입식을 유도하고 각기 다른 지역적 전개패턴을 형성시켰는데, 최초의 분산적 패턴은 동향인집단의 소농집과 같은 소촌적 형태로 이행하여 왔으나, 경지기반의 협소성과 도시적 취락의 흡입요인들은 촌락의 계속적 응집이나 신입지의 확산을 방해하여 촌락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으며, 경지와 가옥과의 관계로 볼 때, 산촌의 기본적 특징인 일과경지현상과 경지-가옥연접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최기엽(1985, 104)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는 촌락경관 형성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시간적 이행과정이 여건으로서 작용하고 각기 다른 사회집단의 노동, 이동, 장소, 사회적 기능이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촌락경관을 사회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중부이남지역의 경우 18세기 중반경에 취락의 축진이 완료된 것으로, 즉 국토의 경지화가 끝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서해안과 동해안 인근의 저평한 구침식면상의 수리가 힘든 임야지와 서해안의 간석지와 같은 저습지는 근대에 이르러 개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특히 구릉지의 개간과 관련하여 서해안의 서산 및 고창과 동해안의 강릉 근교의 고도 약 50m 이하의 침식면상 임야는 일제 침입을 출발점으로 해방, 6.25 동안, 수리시설의 완비, 국가의 농지개간정책에 이르는 시간적 전개과정상에서 사회경제적 과정에 대응하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게 되고, 전통적 촌락과 단절되면서 특수한 지형단위에 분절되는 산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산촌을 전통적 촌락과는 다른 하나의 유형화된 산촌경관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사회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한국 촌락에 있어서 근현대의 산촌경관은 전통적 촌락과는 달리 완전히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과정에 대응하는 경관을 형성하여 근현대의 산촌과 전통적 촌락은 양극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최기엽의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연구가 태안반도 일대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한 것에 비해 연구대상지역을 한국 전체로 확장하고,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연구가 제시한 바 있는 '태안반도 일대 촌락의 이원적 형성유형'을 '한국 촌락의 이원적 지역적 전개과정'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최기엽(1985)의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연구가 제시한 바 있는 '산촌경관의 사회경관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기엽(1993)의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연구는 최기엽이 이전의 두 연구, 즉 '산촌경관의 형성과정'(1985)과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1986)에서 제시한 '사회적 경관으로서의 산촌경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최기엽(1993)의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연구는 '산촌경관의 내용과 공간범위의 정합적 대응관계', '산촌경관지역과 주변 집촌경관지역과의 대립적 위상관계' 및 '산촌경관의 본원적 형태로서의 집촌경관'을 선명하게 표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하면, '산촌경관의 내용과 공간범위의 정합적 대응관계'는 '침식평탄지→자본투입의 사회적 과정→임야개간 노동과정→산촌경관내용의 형성'이라는 도식을 통해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구성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경관을 사회적 경관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최기엽, 1993, 76), '산촌경관지역과 주변 집촌경관지역과의 대립적 위상관계'는 '소하곡이나 개석곡지의 입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일반집촌이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패턴을 기본적 요소로 하면서 잔존산림, 폐쇄적인 가옥구조, 정비된 경지와 수로, 개간지, 거의 회복이 없는 침식지 등으로 구성된 산촌'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최기엽, 1993, 74). 또한, '산촌경관의 본원적 형태로서의 집촌경관'은 산촌경관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개선에 의해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결과된 것을 의미한다(최기엽, 1993, 80).

최기엽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의 요약 : 최기엽(1985; 1986; 1993)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정리한 결과, 최기엽의 태안반도 촌락형성론은 '촌락형성에 있어서 집촌과 산촌의 이원적 전개'와 '산촌경관의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이원적 전개’는 촌락의 입지와 농업형태에 따라 개석곡지 및 해안에서 각각 답작 및 염업에 종사하는 전통적 집촌이 형성되고, 신개간 구릉지에서 전작에 종사하는 산촌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은 유형, 지형환경, 형성시기,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촌락과 신개간지 촌락으로 분류되는데, 전통촌락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산록이나 개석곡지 및 해안에서 동족자연공동체 중심의 집촌을 형성하여 답작농경이나 어업이나 염업에 종사했고, 신개간지 촌락은 1930년대 중반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으로부터 1962년 수리시설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20m 내외의 탁상침식지에서 여러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산촌을 형성하여 초기엔 임야개척에 의한 발농사에 종사하다가 반답과정을 거쳐서 수전농업에 종사했음을 의미한다(최기엽, 1985, 104-105).

‘산촌경관의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산촌경관의 사회성은 ‘산촌경관의 내용과 공간범위가 정합적 대응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촌경관이 ‘침식평탄지→ 자본투입의 사회적 과정→ 임야개간 노동과정→ 산촌경관내용의 형성’이라는 도식을 통해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구성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내용을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기엽, 1993, 76). ‘산촌경관의 집촌경관과의 대립성’은 소하곡이나 개석곡지의 입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일반집촌이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패턴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잔존산림, 폐쇄적인 가옥구조, 정비된 경지와 수로, 개간지, 거의 기복이 없는 침식지 등으로 구성된 산촌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최기엽, 1993, 74). ‘산촌경관의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은 산촌경관의 본원적 형태가 집촌경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촌경관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개선에 의해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결과된 것임을 의미한다(최기엽, 1993, 80).

④ 전중환(2003)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

전중환(2003)의 ‘내포지역 해만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 연구의 내용을 개관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중환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개관

내포지역(內浦地域)에는 중·소규모의 수많은 해만들

이 분포하여 일찍부터 인간에 의한 대규모 개척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15세기 이전(전중환, 2003, 219)부터 언전(堰田)과 언답(堰畓) 개간을 중심으로 하여 해만개척이 활발했던 반면에, 연구지역의 해만개척은 조선말기까지도 극히 부진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영구하천이 발달하지 못하여 충분한 담수 공급이 불가능했다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함께 주민들이 자유로운 개척에 장애로 작용했던 관(官)의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이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적어도 구한말까지 지역주민들은 해만이라는 공간을 경지화에 유리한 생태적 환경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중앙의 권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해만들에는 경지개간 대신 자염 생산을 위한 경관과 토지이용이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적응전략으로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까지 내포지역의 해만개척은 염전화(鹽田化)를 위주로 진행되었다(전중환, 2003, 220).

일제시기에 이르러 대규모 경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분히 담수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이루어졌다. 경지 개간에 있어서 외지인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규모 개간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지인들의 사업 및 당대의 토목 기술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간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전중환, 2003, 220).

광복 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동안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존속성’은 소금 생산이 여전히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중요한 적응전략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전중환, 2003, 220).

㉡ 전중환의 태안반도 촌락형성 연구의 정리

전중환(2003, 220)의 ‘내포지역 해만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 연구는 내포지역의 해만개척의 전개를 염전화 및 경지화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경지화를 중심으로 한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만개척의 전개와 관련하여 내포지역의 해만개척 과정에서 조선후기까지 염전화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제시기에 이르러 경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염전화는 일제시기 이래 여전히 지역의 중요한 토지이용으로 존속해왔는데, 이러한 '지리적 장기존속성'은 소금 생산이 여전히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중요한 적응전략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와 관련하여 일제시기 이래 전개된 경지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주로 대규모 개간사업을 시행했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규모 개간에 참여했다.

(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동향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봉준(1977),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최기엽(1985; 1986; 1993), 전중환(2003)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봉준(1977)이 제시한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요인을 보면, 자연적 요인으로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 토양 등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노력 동원 기피·은거, 왜구 전란 도피·은거,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소규모 불연속 경지, 소작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과 이문중이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저술들을 정리한 결과, 이문중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이 집촌과 산촌을 중심으로 이원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촌락형성의 과정에서 '임야개척', '해만개척' 및 '씨족 집단의 공간적 확산'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최기엽(1985; 1986; 1993)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최기엽은 한편으로는 이문중의 주장과 같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이 집촌과 산촌을 중심으로 이원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문중의 연구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산촌경관의 형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산촌경관의 사회적', '산촌경관의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산촌경관의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 대하여 밝혀내고 있다.

전중환(2003)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를 정

리한 결과, 이문중의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밝혀진 태안반도의 해만개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내포지역의 해만개척은 '염전화가 선행되고 이어서 '경지화'가 전개되었는데, 염전화는 '지리적 장기존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지화 과정에서 대규모 개간은 외지인이 주도하고, 소규모 개간은 지역주민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봉준의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현지답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일련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문중과 최기엽의 연구들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현지답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일련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 특히, 이문중과 최기엽의 각각의 일련의 연구들 가운데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와 최기엽(1986)의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각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가히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결정판에 해당된다. 또한, 전중환의 연구는 이문중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일반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 형성되고, 산촌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이문중, 1996, 222).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하천이 보편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산성 구릉지가 대부분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즉 평야지대도 아니고 고원, 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도 아닌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집촌도 산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이문중과 최기엽의 여러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태안반도에는 집촌과 산촌이 공존하면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집촌의 경우 일부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이 우리나라 서남부의 평야지대의 전통적인 집촌들과 마찬가지로 배산임수의 골형 입지에서 괴촌상 집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산촌의 경우 기존 이론과 달리 고원, 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가 아닌 저산성 구릉지 완사면 일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태안반도의 경우 대체로 저산성 구릉지 사이의 곡지에 집촌이 발달해 있고, 구릉지의 완사면에 산촌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연하면,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록이나 '골'에서는 수전농업에 의한 집촌, 구릉지 위에서는 임야개척과 관련해서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 발달하고, 산촌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의 화전지대에서 발달한다는 종래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이문중, 1988, 143).

태안반도의 촌락은 집촌과 산촌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면, 임야개척, 해만개척,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 등 3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이문중, 1983; 1986; 1988; 1989; 1991), 특히, 산촌경관의 경우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최기엽, 1985; 1986; 1993).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결과는, 단편적 연구의 두가지 한계, 즉 '산촌에 한정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산촌형성 요인으로 다양한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시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결과와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에 관해서 최기엽(1985, 104; 1986, 134; 1993, 76), 이문중(1986, 368)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는 집촌과 산촌 모두의 형성시기를 제시하고 있고, 이봉준(1977, 236)은 산촌의 형성시기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집촌과 산촌의 형성 시기 모두를 제시한 경우를 보면, 대체로 두가지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기엽(1985, 104; 1986, 134)과 이문중(1986, 368)이 제시하는 것으로 집촌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그리고 산촌은 '1930~1960년대'에 각각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기엽(1993, 76)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가 제시하는 것으로 집촌은 '조선시대부터' 또는 '일찍부터', 그리고 산촌은 '근현대 또는 근래'에 각각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 간의 결정적 차이는 집촌의 형성시기인데, 집촌의 형성시기를 전자는 '18세기 중반 이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조선시대부터'로 제시하고 있

다. 산촌의 형성시기만을 제시한 이봉준(1977, 236)은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시기를 '조선왕조 초기'로 제시하고 있다³⁾.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절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이문중, 최기엽 등의 일련의 연구는 촌락의 발달, 입지, 형태, 기능 등 주제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촌락지리학의 연구수준의 일단을 가늠하고 동시에 태안반도 지역 연구에서는 물론 일반적 지역 연구에 있어서 촌락지리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과제

1) 태안반도의 전통적 집촌 및 산촌 연구의 과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편적 연구와 종합적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한 결과,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형성 요인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태안반도의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 연구의 과제를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에서 형성되고, 산촌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에서 형성된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태안반도에서 집촌은 저산성 구릉지 사이의 곡지(谷地) 등에서 나타나고, 산촌은 저산성 구릉지의 완사면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태안반도에서 집촌과 산촌은 매우 특이하게 공존하고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의 결과, 태안반도의 산촌은 이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연적 요인으로는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얕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배수 양호성, 강한 해풍 등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산지사면 개간, 간석지 개척,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짧은 개간 역사, 외지 복귀·유입, 발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집단거주 피해의식,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소규모 불연속 경지, 기타(인구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 대한 문

현조사의 결과, 태안반도 일대에서 집촌과 산촌을 포괄하는 촌락형성 요인은 임야개척, 해만개척,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 등 3가지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산촌경관의 경우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와 종합적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의 연구들에 의해서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3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임야개척’, ‘해만개척’ 및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 중 임야개척 및 해만개척에 해당되는 요인만 제시하고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종합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서 제시한 ‘산지사면 개간’과 ‘간석지 개척’은 각각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 제시한 ‘임야개척’과 ‘해만개척’을 의미하는데, ‘산지사면 개간’과 ‘간석지 개척’은 각각 1개의 연구에서만 제시되고 있고,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을 산촌형성의 차원으로 국한하면서 주요 요인을 아직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들을 거의 총망라하고 있으나, 요인 상호간의 관계가 분석되지 못한채로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종합적 연구가 집촌과 산촌을 아우르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크고 시급하다

한편,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촌락의 곳곳에서 농업개발, 주거개발, 관광개발, 공업개발 등이 광범위한 면적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태안반도 일대 촌락의 원형(原形)이 매우 급속하게 해체되거나 변형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반도 일대에 고유하게 전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2) 태안반도의 유사집촌 및 유사산촌 연구의 과제

태안반도에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 중 원형이 일부 변형되어 있는 경우를 ‘유사집촌’이라, 그리고 전통적 산촌 중 원형이 일부 변형되어 있는 경우를 ‘유사산촌’이라 각각 칭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배산입수의 경사변환선상 골형 입지에서 괴촌상 집촌(塊村狀 集村)을 형성하고 주로 벼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집촌’이라 한다면, 태안반도에는 전통적 집촌의 원형적 요소 중 일부가 변형된 ‘유사집촌’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사집촌은 특히 배산입수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 집촌은 기본적으로 ‘촌락의 공간구조 모델’(이문중, 1982, 323-337)이나 ‘기승전결적 촌락구조(起承轉結的 村落構造) 모델’(임덕순, 1990, 243)을 취하고 있는데, ‘촌락의 공간구조 모델’은 촌락이 주거공간, 방어공간, 배양공간, 자원공간 및 교통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기승전결적 촌락구조 모델’은 촌락이 배산입수의 입지에서 풍수지리적 길지구조(風水地理的 吉地構造)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태안반도 일대의 유사집촌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 집촌이 취하고 있는 ‘촌락의 공간구조 모델’이나 ‘기승전결적 촌락구조 모델’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태안반도에서 구릉성 산지간의 무하천 곡저지, 구릉성 산지의 완사면, 해만의 육지 굴곡부(굴)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산촌을 형성하고 주로 밭농사에 종사하는 촌락을 ‘전통적 산촌’이라 한다면, 태안반도에는 전통적 산촌의 원형적 요소 중 일부가 변형된 ‘유사산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산촌은 기존의 전통적 산촌 입지에서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와 기존 입지에서 벗어나서 간척지 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여 산촌 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사산촌 중에서 특히 가옥을 간척지 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고서도 전통적 집촌의 원형적 요소인 논농사를 겸하면서 산촌형태를 유지하는 유사산촌은 전통적 산촌의 원형적 요소가 변형된 위에 기존 입지에서 산촌으로 존재하던 시기에 ‘가옥경지 근접원리’에 의거하여 가옥을 자신의 경지의 한 가운데에 입지시키던 관행을 논농사 지대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결국, 유사산촌은 가옥이 밭농사 지대에 그대로 있던

논농사 지대로 이전하였던 두 경우 모두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집촌적 요소인 논농사를 행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옥이 밭농사 지대에서 논농사 지대로 이전한 경우 밭농사 지대에서 적용하던 가옥·경지 근접 원리를 논농사 지대에서도 재현하고 있다.

부연하면, 구릉지 완사면 등 기존 입지에서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는 권혁재(1995, 254; 2003, 464)가 기술한 바와 같이 “하천은 없으면서 지하수면이 얇은 곡저지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다가 관정 개발로 밭을 논으로 전환”하면서 산촌이 밭농사와 논농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와 같이 기존 산촌이 밭농사 위주에서 논농사 병행으로 변경되면서도 기존 산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밭농사 위주의 전통적 산촌과 대비하여 이른바 ‘유사산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구릉지 완사면 등 기존 입지에서 벗어나서 간척지 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여 기존 산촌형태를 집촌형태로 전환하지 않은채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도 ‘유사산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구릉지 완사면 등 기존 입지에서 산촌으로 존재하던 시기에 ‘가옥·경지 근접원리’에 의거하여 가옥을 자신의 경지의 한 가운데에 입지시키던 관행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면서 벼농사와 같은 집촌적 요소를 차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안반도에서 촌락형성 요인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지역 고유의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원형에 대한 변형으로서의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이 출현하고 있고, 특히 교란산촌의 경우 논농사와 같은 전통적 집촌의 원형적 요소를 차입하면서도 가옥·경지 근접원리와 같은 전통적 산촌의 원형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적 및 논문 형태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했고, 태안반도 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답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에서 형성되고, 산촌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에서 형성된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전형적 평야지대가 아닌데도 집촌이 발달해 있고, 고원, 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가 아닌데도 산촌이 발달해 있다. 즉, 태안반도의 경우 대체로 저산성 구릉지 사이의 곡지에 집촌이 발달해 있고, 저산성 구릉지의 완사면에 산촌이 발달해 있어, 결국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집촌과 산촌이 공존하고 있다.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시기를 보면, 대체로 집촌의 형성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완료되었고, 산촌의 형성은 1930~1960년대 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은 집촌과 산촌을 포괄하여 입야개척, 해만개척, 씨족집단의 생활공간 확대 등 3가지로 집약되고 있고, 산촌경관의 경우 사회성, 집촌경관과의 대립성 및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반도의 산촌의 경우 이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이 촌락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릉성 산지 발달, 하천·평야 미약 발달, 곡저지 얇은 지하수면, 구릉지 척박토양, 배수 양호성, 강한 해풍 등의 자연적 요인과 산지사면 개간, 간석지 개척, 노력동원 기피·은거, 왜구·왜란 도피·은거, 짧은 개간 역사, 외지 복귀·유입, 밭농사 중시, 풍수사상, 신분관계, 집단거주 피해의식, 자기소유 경지내 택지선정, 소규모 불연속 경지, 인구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그것들이다.

한편, 필자의 답사결과에 의하면, 태안반도에서 촌락형성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원형의 일부만 적용되거나 일부가 변형된 새로운 유형의 집촌 및 산촌, 즉 이른바 ‘유사 집촌’과 ‘유사산촌’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유사집촌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 집촌이 오랜 세월을 걸쳐 화석적 관행(化石的 慣行)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 ‘촌락의 공간구조 모델’이나 풍수지리에 의거한 ‘기승전결적 촌락구조 모델’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촌락 입지의 배산임수

원리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기존의 전통적 산촌 입지에서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와 기존 입지에서 벗어나서 간척지 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여 산촌형태를 유지하면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겸업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연하면, 전자의 경우 구릉성 산지 등에 산재형(散在形)으로 입지하여 밭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통적 산촌이 ‘평지에서의 벼농사’라는 집촌의 전통적 특성을 겸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산촌 입지에서 산촌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산촌 입지에서 벗어나서 간척지 논농사 지대로 이전 입지하여 산촌형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 산촌에서의 ‘가옥경지 근접원리’를 논농사 지대에서도 관행적으로 반복하면서 산촌에 논농사와 같은 전통적 집촌의 원형적 요소를 차입(借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제언

태안반도에는 최근 들어서 촌락지역의 곳곳에서 현대적 대단위 농업개발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등 도시적 주거 기능체의 건설, 어촌, 산지촌 등의 관광 개발, 제조업 기능체의 입지, 각종 도로 건설 등이 신개척지에서처럼 난상(亂狀)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태안반도 촌락의 원형이 매우 급속하게 변형되거나 심지어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남부 평야지역의 일반적 집촌과 다른 입지조건하에서 태안반도에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과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의 일반적 산촌과는 다른 입지조건하에서 태안반도 일대에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산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태안반도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특히, 전통적 집촌에서 원형적 요소의 변형상태, 전통적 산촌에서 집촌적 요소의 차입, 논농사 지대에서 전통적 산촌의 가옥경지 근접원리의 재연 등은 다소 변칙적인 상태로 간주되어 심층적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가 태안반도의 일반농촌에 한정하여 그의 촌락형성 요인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 및 과제를 파

악하였기 때문에 태안반도에서 일반적 농촌과 연계된 상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어촌(漁村)이나 면 행정구역 단위로 발달해 있는 중심지 가촌(中心地 街村)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일부의 제한이 있었다⁶⁾.

註

- 1) ‘산촌’은 일반적으로 山村(산촌)과 散村(산촌)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산촌’을 散村(산촌)의 의미로 사용하고, 山村(산촌)은 산지촌(山地村)으로 표기한다.
- 2) 국립지리원(1980)의 실제 집필자는 ‘강대현’이다.
- 3)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2000) 및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2000)의 실제 집필자는 ‘서찬기’이다.
- 4) NGII(2010)의 실제 집필자는 ‘이재택’이다.
- 5)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 중 정장호(1980, 208), 홍경희(1985, 198) 및 권혁재(1995, 254)의 연구에도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단, 이 연구들에는 산촌의 형성시기만이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정장호(1980, 208)는 ‘근래 인구증가에 따라’로, 홍경희(1985, 198)는 ‘조선초 초기’로, 권혁재(1995, 254)는 ‘한국전쟁 이후 집중적으로’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 6) 태안반도의 어촌이나 중심지 가촌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인데, 어촌의 경우 김부성(1996)의 논문인 “천수만 지역의 어촌 분포와 변화”와 태안군지편찬위원회(2012)가 편찬한 「태안군지: 제1권 삶의 터전과 역사」에서 최원희가 집필한 ‘어촌’ 부분이 사실상 전부이고, 중심지 가촌의 경우 태안군지편찬위원회(2012)가 편찬한 「태안군지: 제1권 삶의 터전과 역사」에서 최원희가 집필한 ‘중심지 가촌’ 부분이 사실상 전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형성 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농촌은 물론 어촌, 중심지 가촌 등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인데, 어촌, 중심지 가촌 등에 관한 연구 자체가 거의 1, 2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참고문헌

-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 총론」.
- 권혁재, 1995,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 권혁재, 2003, 「한국지리: 총론」, 법문사.
- 김부성, 1996, “천수만 지역의 어촌 분포와 변화,” 문화역사지리, 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36.
-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 오홍석, 1980, 「취락지리학」, 교학사.
- 이문중, 1983,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 박사 화갑 기념 논집, 석천이찬박사화갑기념논집간행위원회, 56-77.
- 이문중, 1986,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4, 345-369.
- 이문중,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 이문중, 1989,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를 중심으로,”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7, 285-295.
- 이문중, 1991,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295-331.
- 이문중, 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13-254.
- 이봉준, 1977,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9-42.
- 이 전, 2011, 「촌락지리학」, 푸른길.
-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의 관계」, 법문사.
- 전종한, 2003, “내포지역 해만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 대한지리학회지, 38(2), 206-223.
- 전종한외, 2005,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 정장호, 1980, 「신편한국지리」, 우성문화사.
- 정장호, 1989, 「한국지리」, 우성문화사.
- 제29차세계지리대회조직위원회, 2000, 「한국지리」, 교학사.
- 최기엽, 1985,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 응용지리, 8,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79-106.
- 최기엽, 1986,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박사학위논문.
- 최기엽, 1993,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전환기의 한국지리: 남계형기독교수화갑기념논집」, 남계형기독교수화갑기념논집간행위원회, 71-94.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 태안군지편찬위원회, 2012, 「태안군지: 제1권 삶의 터전과 역사」.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NGII), 2010, *The Geography of Korea*.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Korea, The Land and People*.
- 교신 : 최원희,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w@kongju.ac.kr)
-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14-701, 182 Shinkwan-dong, Kongju-si, Chungnam, Korea,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kongju.ac.kr)
- 투 고 일: 2012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29일
 투고확정일: 2012년 10월 30일